

# 2015년 동계 학술대회의 이모저모

## 제48회 한국진공학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윤완수



[Fig. 1]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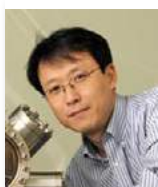
이번 동계 학술대회는 48회 째를 맞이하는 한국진공학회의 정기학술대회로서, 강원도 횡성의 웰리힐리파크에서 2월 9일에서 11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여섯 개의

분과 중 세 개의 분과는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총회초청 및 분과초청 강연을 포함하여 총 450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첫날은 매년 학술대회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진공기술 강좌가 종일토록 진행되어 진공기술의 기초와 응용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날 오후에는 과학논문 작성 및 연구윤리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학술행사장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내년도 진공학회의 큰 행사로 준비 중인 IVC-20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업체 심의절차도 진행되어, 세계 최대의 진공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학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학회는 예년과 달리 첫날 저녁부터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학술대회 첫째 날의 느슨함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토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에 일조하였다.

둘째 날은 가장 바쁜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공학회 여섯 개 분과의 심포지엄과 발표회, 점심시간 직전과 저녁시간 전에는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님과 (주)제4기 한국의 박남선 연구소장님의 총회초청강연, 성균관대학교 염근영 교수님의 학술상 수상기념 강연, 첫날에 이어 진행되는 포스터 발표, 그리고, 모든 발표일정 이후의 총회 및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부지런한 회원들의 바쁜 하루가 바로 둘째 날이었

### <저자 약력>



윤완수 교수는, 2000년에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Harvard 대학교에서 박사후연수를 거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나노양자연구단장 재직 시점에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부임하여, 주로 나노소자를 이용한 나노바 이오분석 분야 연구에 힘쓰고 있다. (wsyun87@skku.edu)



[Fig. 2] 나노소재를 이용한 암치료 연구를 소개하는 김영근 교수

다. 특별 심포지엄을 진행한 반도체 및 박막 분과, 표면 및 계면과학 분과, 그리고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 분과는 다른 분과에 비해 훨씬 더 바쁜 하루를 보냈으며, 두 개의 총회 초청 강연은 각각 암 치료에 있어서 나노소재 활용에 대한 빼어난 연구와 진공 산업과 진공학회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에 대해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수상기념 강연에서는 원자층 식각기술이라는 분야를 리드해가고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훌륭한 연구자의 모범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총회 및 간담회 장소에서는 학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와 함께, 수상기념 강연을 하신 성균관대학교 염근영 교수님께 학술상이 수여되었고, 강원대학교 류미이 교수님께는 논문상이, (주)ATS엔지니어링에는 진공기술상이, 연세대학교 박승종 회원에게는 젊은진공과학자상이, 그리고, 지난 발표회에서 우수한 포스터를 발표한 회원들에게는 으뜸포스터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학술발표회는 셋째 날 오전에도 분과 발표회와 점심 시간 이후의 포스터 발표회를 포함하여 열띤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교류의 기억을 남기고 마무리 되었다. 이번 행사는 새로이 출범한 13대 임원진이 운영한 첫 번째 학술대회로서, 내년에 있을 커다란 국제행사 준비의 시점이 되기도 하는 뜻 깊은 행사였으며, 다음번 제49회 하계학술대회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g. 3] 으뜸포스터 수상자들. 왼쪽에서 다섯 번째는 한국진공학회 강희재 회장